

잘못 고소했다간 큰 코... '무고' 강력 처벌

광주지검, 교통사고 자해범 등 을 30건 기소

고소·고발 난무... 10건 중 8건이 무혐의

#1. 대학생 A(여·22)씨는 올 초 알고 지 내던 남성과 합의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 음에도 남자친구에게 현장을 들켜자 남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내용과 모텔 엘리베이터 동영상 등 물증이 드러나면서 무고가 밝혀졌다. 하지만 고소당한 남성은 수사를 받느라 취업 기회마저 잃었다. A씨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철근업체를 운영하는 B(52)씨는 C씨의 회사로부터 2억원짜리 전자어음 할

인을 의뢰받아 이를 송낙하고 전자어음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그러나 B씨는 할인대금 중 4000만원을 회사계좌가 아닌 C씨의 개인계좌로 송금했고, 이를 빌미로 C씨가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참고인 6명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 피의자 대질 조사 등을 통해 B씨로부터 혐의를 자백받고 그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3. 회사원인 D(35)씨는 스스로 E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들이밀어 넘어졌 음에도 E씨가 들이받아 다친 것처럼 허위

고소했다가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겼다.

광주·전남에서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나 고소를 해 상대방을 괴롭히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왜곡하려 한 무고사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무고를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피해자로 판명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피해해 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 까지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나 고소를 해 상대방을 괴롭히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왜곡하려 한 무고 사범 30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9명은 약식

으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에서만 하루 4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다. 2014년 1만4000건, 지난해 1만6000건, 올해 상반기 7700건에 달했다. 이 중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기소율은 같은 기간 각각 21.3%, 18.8%, 22.7%에 그쳤다. 10건 중 8건 가량은 '혐의없음' 등으로 기소하지 못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무고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신고 및 고소는 상대방을 피조사자로 만들어 심리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국가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집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후 광주시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기결석 학생·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엉망”

광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의 더딘 행정으로 학생들의 진로 체험에 도움을 줄 진로체험센터 운영이 늦어지는가 하면, 정확성을 기해야 할 실내 공기질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광주시의원들은 장기 결석 학생 등 부적응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도 요구했다.

문태환 광주시의원(광산2)은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센터 사업비를 1년 전에 받아놓고도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정작 센터 운

영은 올 9월 말에야 들어갔다”면서 “안이한 행정으로 1년 가까이 센터 운영을 하지 못하다보니 애먼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10월 말까지 해당 센터를 이용한 학생은 전무하다는 게 문 의원 설명이다. 같은 사업비를 받은 동부교육청이 5월부터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 135개교 700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한 것과 대조적이다. 고작 3개월간의 사업비로 1억원을 지급한 점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 공기질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이 관련 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실내 공기질 검사의 경우 계약 완료 시기(12월 말)

등으로 통틀어 검사 항목이 앞당겨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옥자 광주시의원(광산3)은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 3~9월까지 6일 이상 결석, 집중 관리 대상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32명, 중학교 43명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6일 이상 결석하면 관련 사항을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하는 교육부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위 부르는 비...내일 기온 뚝

8일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지역에서 그치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기상청은 몽골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9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주, 담양, 화순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0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 11일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

남양학원 첫 이사회 ‘쇄신 행보’

교직원 채용 비리가 발생한 광주 남양학원(동아여중·고)이 임시이사 선정 뒤 첫 이사회를 열고 쇄신 행보를 본격화했다.

7일 남양학원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이날 오후 첫 이사회를 열고 김선호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8명의 임시이사를 선정, 남양학원에 파견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또 교직원 채용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교직원 등 4명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징계(파면) 요구와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5명의 임시이사들로 징계위원회도 구성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교사 6명에 대한 임용 취소 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0 해질 13:29
해짐 17:32 맑음 13:29

건강관리에 유의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맑	8/12	보성	비온뒤 맑	10/12
목포	비온뒤 맑	10/12	순천	비온뒤 맑	11/14
여수	비온뒤 맑	12/15	영광	비온뒤 맑	9/11
나주	비온뒤 맑	8/12	진도	비온뒤 맑	11/12
완도	비온뒤 맑	10/12	전주	비온뒤 맑	8/12
구례	비온뒤 맑	10/12	군산	비온뒤 맑	8/11
강진	비온뒤 맑	11/12	남원	비온뒤 맑	8/12
해남	비온뒤 맑	10/11	축산도	비온뒤 맑	9/10
장성	비온뒤 맑	8/1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1.0~2.0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2.0~4.0	북서~북	2.0~4.0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낮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32	07:21
	12:34	20:05
여수	간조	만조
	08:11	02:20
	22:07	15:16

◇주간 날씨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	☀	☀	☀	☀	☀	☀
2/11	2/14	7/16	5/18	8/17	5/17	6/18

“제자 취업 추천 김영란법 대상 아냐”

정부 TF “수능 합격 땀·수험생 간식 법 저촉 안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주는 ‘합격 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문답
-선배 또는 선생님에 후배나 학생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떡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나.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험생 전원에게 학교를 통해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격려하

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선생님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게 허용되나.

▲학생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만 허용된다.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속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223-5506

구도청! ●충정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O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지보유에 따라 예금보유금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